

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HPAI로 오리농가 피해 눈덩이

한국오리협회 충남도지회 박영배 지회장

“SI로 인해 오리 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SI가 발생할 때 마다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오리협회 충남도지회 박영배 지회장은 충남 천안에서 두성종오리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박 지회장도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HPAI를 피해가지 못하고 애지중지 키우던 종오리를 살처분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충남 천안지역은 매년 겨울철새 도래지로 SI 발생시마다 노심초사하며 차단방역에 애쓰고 있지만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박 지회장도 이번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인근 농장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당하는 등 SI 발생시마다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종오리농장은 그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다. 종란을 생산하기까지 육성후 본격적으로 종란을 생산하기 시작한 직후 발생한 SI로 인해 그 동안은 노력이 헛수고가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박 지회장은 SI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지회장은 “SI발생 이후 사람, 차량 등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는 잘못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철새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는 농가 입장에서 역울할 수 밖에 없는데 무조건 농가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히 박 지회장은 “철새에 의한 전파가 가장 유력한 만큼 방역당국의 책임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회장은 “오리산업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SI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리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이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라며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SI 발생시마다 새로운 규제가 생기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리휴지기제, 살처분 범위 확대, 입식제한, 울인올아웃 등 SI가 거듭될수록 농가는 오리사육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입식제한 등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소득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오리농가들이 오리 사육을 포기하고 다른 축종으로 전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오리산업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종오리농장의 경우만하더라도 종란 생산까지 육성하고 본격적으로 종란을 생산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데 산란 중인 종오리를 살처분할 경우 소득이 발생할때까지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종오리농장은 입식을 시작하더라도 일시에 물량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 종오리를 제대로 입식도 못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HPAI 근본적인 대책 마련 절실 오리산업 위해 종사자 뚝뚝 뭉쳐야”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는 물론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뚝뚝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회장은 “오리산업은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도 적고 농가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그럴수록 오리업계가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때 정책당국도 관심을 갖고 오리산업을 위한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회장은 이처럼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뚝뚝 뭉쳐야한다고 말한 것은 그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박 지회장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축협 직원, 축산전문지 기자 등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천안축협 감사로 12년을 종사하면서 타 축종과 오리업계가 많이 비교되는 점을 겪었다.

“한우, 양돈 등 타 축종의 경우 하나된 목소리로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할 경우 정책당국에서도 이를 무시하지 못한다”라며 “오리업계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때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